**나훔**

**저자와 기록연대**: 본서는 선지자 “나훔의 묵시의 글”(1:1)이며, 나훔은 “위로”를 뜻한다. 앗수르의 멸망이 유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. 저자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, 주전 663-61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(애굽의 데베 시의 함락과 앗수르의 멸망 사이).

**배경**: 앗수르 제국(수도 니느웨)이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(수도 사마리아)을 함락시키고 남왕국 유다에 큰 위협을 주기 시작했다. 앗수르는 잔인하고 포악해서 정복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잔혹하게 처형했고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루어서 주변국가들이 크게 두려워했다.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(욘3:4)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었지만, 이는 오래 가지 못하고 그들은 다시 이전의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갔다. 이는 마지막 왕 앗수르바니팔 때(주전 669-627)에 절정에 달했다. 그러나 그가 죽자 앗수르의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하였고 주전 612년에 니느웨는 바벨론과 메데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다(1:15-2:1 참고)

**주제**: 하나님의 절대 주권 – 하나님은 역사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며 그들의 운명을 주장하신다. 본서의 예언은 니느웨의 압제, 잔악함, 우상숭배 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,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자비하신 분이지만, 동시에 벌 받을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엄하신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.

**개요**

1. 제목 (1:1)
2. 니느웨의 심판자 (1:2-15)
3. 여호와의 공의와 사랑 (1:2-8)
4.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위로 (1:9-15)
5. 니느웨의 심판 (2장)
6. 포위와 공격 (1-9)
7. 이전의 영광을 상실한 황폐 (10-13)
8. 니느웨의 최후 (3장)
9. 니느웨의 죄 (1-4)
10. 니느웨의 종말 (5-19)